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璟 培

學生의 學級風土 知覺과 學業成就와의 相關關係에 대한 研究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lassroom Climate
Variable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徐

源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璟 培

學生의 學級風土 知覺과 學業成就와의
相關關係에 대한 研究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lassroom Climate
Variable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徐 源

徐 源의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6月 日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2
3. 研究의 制限點	2
II. 理論的 背景	4
1. 學業成就 關聯變因	4
2. 學級風土와 學業成就	8
3. 學級風土 關聯 先行研究	13
III. 研究의 問題와 假說	18
1. 研究의 問題	18
2. 假 說	18
IV. 研究의 方法	20
1. 研究의 對象	20
2. 檢査의 道具	21
3. 研究의 節次	21
4. 資料의 處理	22
V. 結果 및 解釋	23

1. 學生들의 各 學年에 따른 相關關係	23
2. 學生들의 各 性別에 따른 相關關係	29
3. 仲裁變因의 介入에 따른 差異檢證	33
4. 學級風土 下位變因들과의 相關關係	37
 VI. 要約 및 結論	40
1. 要 約	40
2. 結 論	42
 參考文獻	44
英文抄錄	49
附 錄	52

表 目 次

〈表-1〉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20
〈表-2〉 학급환경 문항구성표	21
〈表-3〉 1학년 학생의 기술통계치	23
〈表-4〉 1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24
〈表-5〉 2학년 학생의 기술통계치	25
〈表-6〉 2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26
〈表-7〉 3학년 학생의 기술통계치	27
〈表-8〉 3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28
〈表-9〉 남학생들의 기술통계치	29
〈表-10〉 남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30
〈表-11〉 여학생들의 기술통계치	31
〈表-12〉 여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32
〈表-13〉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만족도 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효과	33
〈表-14〉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갈등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효과	34

〈表-15〉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곤란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효과	35
〈表-16〉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경쟁심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효과	36
〈表-17〉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응집력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효과	37
〈表-18〉 학급풍토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치	38
〈表-19〉 학급풍토 하위변인과의 상관관계	38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학업성적은 학생개인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학군에 전입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때로는 막대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각오하면서까지 심지어는 불법 전입의 불명에도 감수하곤 한다.

이것은 곧 많은 학부형들은 훌륭한 학교 풍토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는 데에서 기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학자들도 학교 교육의 효과가 가지는 사회적 보상의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성취, 즉 학업성취의 결정요인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지금까지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로서 이는 학교보다는 오히려 학생의 가정 배경이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입장은 학교의 교육적 환경 또는 학교의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특성으로 조성되는 학교환경이 결국 학생의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견해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배경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의 논란으로 말미암아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가 그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들과 각 교과목

과는 상호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밝힘으로서 오늘날 한창 문제시 되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일익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급내에서의 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환경변인이 그들의 학업성취와는 상호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기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급 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들과 그들의 학업성취와는 학년(연령)에 따라서 상호 어떤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밝힌다.

둘째,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급풍토 하위변인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究明한다.

셋째,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급풍토 하위변인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학년(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는데 있다.

넷째,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들간에는 상호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究明하는데 있다.

3.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한 학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개개의 연구결과

를 모든 경우에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G.J. Anderson과 Barry J. Fraser 및 H.J. Walberg 등이 공동제작한 “학급환경” 검사지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본래의 질문지가 가지고 있던 성격과는 다소 차이가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본 연구의 대상표집은 무작위추출(random sample)과 무작위할당(random assignment)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집절차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Ⅱ. 理論的背景

1. 學業成就 관련 變因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크게 학교외적인 변인과 학교 내적인 변인으로 나눈다. 여기서 학교 내적인 변인이란 학교 외적인 변인, 이를테면 가정 특성이나 또래 집단, 교사 자질등을 제외한 변인을 말한다. 학교 내적인 변인의 예를 들어보면, 학생의 지능, 공부하는 습관, 태도, 흥미, 성취동기, 학업성취에 대한 불안 정도, 인성(personality traits), 자아개념 등이며 본장에서는 주로 이들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Coleman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이 없으며 학교의 특성보다는 오히려 가정의 특성이나 동료집단이 주는 영향들은 학업성취도와 크게 관련된 변인들이다. 따라서 학교 외적인 변인 가운데 학생의 가정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다음으로 동료집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¹⁾

또한 Jencks도 학업성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학교교육보다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²⁾

이상과 같이 Coleman이나 Jencks와 같은 학자들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학교외적인 변인이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많은 학자들은 학교

1) J.S. Coleman et al.,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pp.72-79.

2) 金億煥, 「教育社會學」, 서울:建大出版部, 1983, p.232.

내적인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고집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학생의 학습습관, 태도가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몇몇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행해진 연구결과에서 상당한 관계가 있다³⁾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적 추구와 교육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좋은 학업성취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Maclelland 등은 “성취동기”라는 그의 연구에서 성취동기와 학업성취도와는 높은 상관이 있다⁴⁾고 한다. 물론 초기의 연구에서 지능과 성취동기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 Maclelland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능과 성취동기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높은 성취동기는 좋은 학업성취를 얻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불안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학업성취도에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견해와 오히려 방해적 역할을 한다는 견해로 보고되었는데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보고로는 불안이 학업에 방해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우세하다.

Sarason의 불안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국민학교의 경우는 불안이 학업성취도에 역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다.⁵⁾

3) C.W. Backman & Paul F. Secord, A Social Psychological View of Education,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8, pp.32-33.

4) D.C. Maclelland & J.W. Atkinson.,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Appleton-Crofts, 1953, p.37.

5) I.G. Sarason, Experimental Approaches to Test Anxiety: Attention and Use of Information, In C.D. Spielberger,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II), New York: Academic Press, Inc., 1972, pp.381-387.

Lynn과 Gordon은 불안의 결핍과 지나친 불안은 학업성취도에 역효과를 나타내지만 적당한 불안은 좋은 성취를 위해 자극하므로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⁶⁾고 하며 文天淑 또한 학업성취에 미치는 불안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불안을 적당히 사용하면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적당한 불안 조성은 학습을 촉진시킨다⁷⁾고 하였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Purkey는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대상들이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정적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선행요인이 되느냐는 것은 확실하지 못하나 자아개념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다⁸⁾고 주장한다.

Torshen은 일반적인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은 0.25이고 학업적인 자아개념과는 0.50의 상관을 보였으며 이 두 영역간의 상관은 0.35로 비교적 낮은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한 영역에 대한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이 다른 영역에 관한 자아개념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두 영역이 모두 낮으면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며 학업적 자아개념이 낮은 학생중 1/2이 이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⁹⁾ 또한 Lecky는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업성

6) R. Lynn & I.E. Gordon, The Relation of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to Intelligence and Educational Attainmen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1(1961), pp.194-204.

7) 文天淑, “학습성취에 미치는 불안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73.

8) W.W. Purkey,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1, p.27.

9) 황정규, 「교육혁신」, 서울:배영사, 1972, pp.141-145.

취도는 학생들이 지닌 자아개념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¹⁰⁾고 제시했고, Fink는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 사이의 관계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욱 높은 상관을 가졌다¹¹⁾고 보고한다. Brookover등도 그들의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의 상관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있어서 더 높았다. 또한 그들의 종단적 연구에서 자아개념의 변화는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가져온다¹²⁾고 논증하고 있다.

인성이 학업성취도와 상관이 있다는 보고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내향성인 학생이 외향성인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한다. Lynn과 Gordon에 따르면 내향성인 학생은 외향성인 학생에 비해 조건화된 반응을 빨리 형성하며 빨리 학습한다. 또한 집중력과 주의력이 강하며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정확하게 해결한다¹³⁾고 한다.

이상에서 알아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학교 외적인 변인과 학교내적인 변인으로 나누었다.

첫째, 학교 외적인 변인에서 Coleman이나 Jencks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
- 10) R.C. Lecky., Self-Consistency: A Theory of Personality, N.Y.: Island Press, 1945, p.41.
 - 11) M.B. Fink., Self-Concept as it Relates to Academic under Achievement, California: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VII, Feb, 1962, p.42.
 - 12) W.B. Brookover, S.Thomas and A. Paterson,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Vol.37, 1964, pp.271-279.
 - 13) Lynn and Gordon, op.cit., pp.194-204.

미치는 것은 학교 특성보다는 가정의 특성과 동료집단으로 보고 있다.

둘째, 학교 내적인 요인을 볼때 지적추구와 교육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좋은 학업성취도와 관련되며 높은 성취동기와 적당한 불안 역시 학업성취도에 좋은 영향을미치고 자아개념의 변화는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가져오며 내향성인 학생은 외향성인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學級風土와 學業成就

여러 연구들은 학생의 가정환경변인이 학업성취 격차를 설명하고 있으나¹⁴ 학생의 가정배경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학교는 학업성취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증거들이 얼마든지 많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학교의 질이 높으면 학생의 성적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낮아진다는 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의 질이 학생의 학업성취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연구한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는 Pace와 Stern 등을 들 수 있다. Pace는 미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풍토를 인문적 풍토(인문주의, 사색, 직관 등을 강조), 실제적 풍토(실용성, 지배복종, 유희 등을 강조), 복지적 풍토(친애, 인간관계 보호 등을 강조), 반항적 풍토(공격, 충동 등을 강조) 등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중 인문적 풍토와 과학적 풍토를 포함한다는 지적 풍토가 강한 학교일수록 학생의 지적수준이 높음을 밝혀 냈는데, 지적 풍토가 강한 대학에서는 유희적 활동보

14) J.S. Coleman et al., op.cit., p.129.

다는 이론적, 추상적, 예술적 활동이 빈번히 일어나며 자유로운 비판과 자기표현 및 자기 결정이 장려되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포부수준이 높고 학업 성취가 강조된다고 보았다.¹⁵⁾

Colemen은 그의 연구에서 지도자급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가를 조사한 결과, 학업에 관심이 적은 학교일수록 능력있는 학생들이 학업이 아닌 분야, 즉, 운동과 사교활동에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¹⁶⁾

이같은 사실은 능력있는 학생들은 동료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학교 풍토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Coleman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연구에 의해 재검토 되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로서 Mcbill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생문화는 성적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 것은 되지 못한다고 한다.¹⁷⁾ 또한 Brookover와 그의 동료들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학업적 성공에 대한 교사의 평가와 기대에 대한 학생의 지각, 학생의 무력감 등을 중심으로 측정한 풍토지수가 학업성취에 뚜렷한 영향을 준다.¹⁸⁾

15) C.R. Pace, CUES: Preliminary Technical Mannual, Princeton, N.Y.: Educational Test Servie, 1969, pp.29-32.

16) 李洪雨, 「교육과정탐구」, 서울:박영사, 1981, p.37.

17) S.S. Boocock,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Learn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2, p.24.

18) W. Brookover, et al., School Social Systems and Student Achievement: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9, pp.63-71.

Mollenkopf와 Melvill은 실제로 학생의 성적과 관계있는 학교의 특징이 연구자료로 가장 잘 나타날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준거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의 연구결과 학생의 학업성취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지리적 위치, 학생 1인당 교육투자경비, 학교가 도시 혹은 지방에 있는지의 여부, 학교직원중 가이던스의 역할을 하는 상담교사와 다른 전문가의 수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Goodmen의 연구 분석의 결과는 Mollenkopf와 Melvill의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둘다 학생 1인당 경비의 특징과 특수요원의 규모가 학생의 성적과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¹⁹⁾

Chen과 Fresko등은 한 학교의 능력별 반편성이 엄격하게 되어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또는 여러 능력의 학생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질집단체제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학교조직에 기반을 두고 능력별 반편성이 엄격하게 된 학교일수록 엘리트 주의적인 풍토와 학습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나, 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은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비교적 낮았다고 하였다.²⁰⁾

이에 반하여 엄격한 반편성 체제가 되어있지 않은 학교의 학생일수록 학교를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격려하는 곳으로 지각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은 엄격한 반편성 체제의 학교보다 평균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Oakes는 학급내의 학생들간의 친절도를 우호, 불화, 파벌, 순종, 존중, 경쟁 등으로 구분하여 학업성취와의 관계가 112.88의 단순상관이 있는 것으로

19) S.S. Boocock, op.cit., pp.43-45.

20) M. Chen & B. Fresko, The Interaction of School Environment and Student Traits, Educational Research, 1978.20, pp.114-121.

로 밝혔다.²¹⁾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학급풍토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Charez와 Cardenas의 연구를 보면 학생들이 학급생활을 만족하다고 지각할 뿐 아니라, 경쟁의식이 높을수록 어학성적과 독해력은 물론 표준화 학력검사 성적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학습에서 파벌의식을 느끼지 않는 학생들이 성취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한다.²²⁾ 이같은 경향은 O'Reilly의 연구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즉, 학습성원간에 결속성과 우애가 깊고, 파벌의식이 없으며, 학업성취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적 인간관계가 강조되는 풍토일수록 학업성취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지각된 학습풍토요인은 지능요인보다 학업성취의 향상량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²³⁾ 그 예로 Walberg와 Anderson의 연구에 의하면 학급 평균 지능지수는 학기초의 학업성취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을때 학년말의 학급평균 향상점수를 5~25% 설명해주는 데 비하여 학급풍토 검사결과는 36~38%를 설명하고 있었다고 한

21) J.Oakes, Classroom Social Relationship: Exploring the Bowles and Gintis Hypothesis, Sociology of Education, 1982, 55(4), pp.197-212.

22) R.Charez, et al., The Use of High Inference Measure to Study Classroom Climate, A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Summer, 1984, Vol.54, pp.237-261.

23) R. O'Reilly, Classroom Climate and Achievement in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Classes, The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75, 21, pp.241-248.

다.²⁴⁾ 그리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는 풍토변인은 학생집단의 응집력과 학습과제의 적절성으로 이들과는 정적 상관을 가지며 교사의 편애주의와 학생들간의 분파주의, 냉담성 등은 負的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Skon과 Johnson의 연구에 의하면 협력적 풍토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경쟁적 풍토에서 공부하는 학생보다 훨씬 학업성취가 높았으며 협동적 풍토는 학업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지속케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힘으로 만들어 팀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팀간에는 경쟁적 풍토를 조성한 결과 교과성적이 좋아지고 협력적 태도도 조성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²⁵⁾

국내 연구로서는 류기섭의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한 지각학급풍토와 학습활동간의 관계연구에서 학습풍토가 자료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민주적 학급풍토와 학업성적과의 유의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²⁶⁾

안귀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그의 연구에서 지각학급풍토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37과 .29로 밝혀져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유의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갈수록 지각풍토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24) H. J. Walberg, et al., Psychology of Learning Environment: Behavioral, Structural or Perceptual in L. Shulman(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1976, Vol.4, pp.142-178.

25) D. L. DeVries & K. J. Edward., Learning Games and Student Team Their Effect on Classroom Proces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73, pp.307-318.

26) 류기섭,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미치는 학급풍토의 영향”, 중앙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19), 1974, pp.45-76.

대한 영향력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²⁷⁾ 김병성의 연구에서는 학급풍토를 교사풍토, 학생풍토, 교장풍토로 보고 이러한 학급풍토는 학업성적을 66.2%로 설명하고 있어 학교환경이 학업성취의 주요한 변인임을 말해주고 있다.²⁸⁾ 그러나 강정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 환경과 학업성취와의 단순상관계수가 .10으로 다른 연구들의 결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²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들에 따라서 정도차이는 있을 지라도 학습 풍토 변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學級風土 관련 先行研究

MCI³⁰⁾를 사용한 연구의 수는 LEI를 사용한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지라도 MCI를 이용한 연구는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

-
- 27) 안귀덕, “귀인성향, 지각학습풍토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p. 43-46.
 - 28) 김병성, 「학교교육과 교육격차」, “교육사회학적 접근과 과제”,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5, p. 83.
 - 29) 강정구,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p. 47-52.
 - 30) My Class Inventory : Western Australia 기술연구소의 Barry J. Fraser와 캐나다 McGill大學의 Gary J. Anderson 그리고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Herbert J. Walberg에 의해 1982년에 공동제작된 “學校環境”검사지임.

Talmage와 Walberg은 Illinois주에서 읽기 프로그램(reading program)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MCI의 예측 타당도를 알아내었다. 표집대상은 국민학교 1, 2, 3학년 그리고 6학년 60학급 1,600명으로 하였으며 얻어진 자료를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학급경쟁이 심할수록 읽기 성적이 뒤떨어졌다.³¹⁾

Fraser와 Fisher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MCI에 관한 지각과 학생의 학업 성취와는 상관이 있다고 한다. 학급 평균은 통계분석의 단위로 사용되었으며, 여러가지 상관관계 분석은 MCI의 예언 타당도를 지키게 했다.³²⁾

Bales는 MCI를 Chicago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학교 4학년에서 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표집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prerest)를 통제함으로써 추리결과(reasoning outcome)와의 상관은 MCI의 5가지 尺度중에서 4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Talmage등은 교육과정 평가연구에 MCI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은 자연과학기초 프로그램(No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에 참여한 교사들에 의하여 가르쳐진 Chicago시에 소재해 있는 23개 국민학교 학급이었다. 23개 학급의 통제 집단과 함께 실험집단은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와 끝날 때에 MCI 질문지에 응하였다. 두 집단(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差를 검증하기 위하여 얻어진 자료를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사후검사(posttest)의

31) H.Talmage & Walberg, H.J., Waturalistic Decision-Oriented Evaluation of a Cdistrict Reading Program, Journal of Reading Behavior, 1978, pp.82-83.

32) B.J. Fraser & Fisher, D.L., Validity and Use of the My Class Inventory, Science Education, 1981, pp.27-29.

33) R.F. Bales, Interaction Process Analysis: A Method for the Study of Small Groups, Reading Mass, Addison Wesley, 1950, pp.39-43.

응집력 점수는 사전검사의 응집력 점수보다 의미있는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에 의하여 가르쳐진 학급(실험집단)이 보다 더 친화적이다.³⁴⁾

주로 탐구적이고 방법론적인 많은 연구에서 Walberg, Sorenson과 Fishbach 등은 MCI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는 학급환경 검사도구의 용도를 연구하였다.³⁵⁾ 이 연구는 미국의 40개 학교 5학년 2,67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환경지각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학생의 성별,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5학년 학생을 예언변인으로 정하였다. 통계분석의 단위는 각 학교의 학생을 4개의 하위집단(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남학생,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남학생,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여학생,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여학생)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복잡하였지만 흥미로웠다. 이를테면,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들은 갈등이 클수록 학교를 덜 경쟁적으로 지각하였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은 더 경쟁적이었다.

MCI 변인의 예언타당도에 관한 정보는 Georgia주에 소재해 있는 국민학교의 대규모 연구프로그램을 기술한 보고서에 밝혀졌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보다는 오히려 학교를 포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MCI의 문항에서 학급이라는 말은 학교로 바뀌었다. 예를들면 Ellett, Masters 그리고 Pool

34) H. Talmage & Hart, A., A Study of Investigative Teaching of Mathematics and Effects on the Classroom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1977, pp.73-78.

35) H.J. Walberg., Sorenson, J. & Fishbach, T., Ecological Correlates of Ambience in the Learning Environ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72, pp.43-47.

등은 학교환경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口述로 MCI를 실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일이 넘었다. 표집대상은 89개 학교의 4학년 학생 6,151명이었으며 학교 평균은 통계분석의 단위로 사용되었다.³⁶⁾

MCI의 5개 척도를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모두 의미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구나 부분적 규범적인(canonical) 상관관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Perkins는 교사태도가 엄격하게 통제되었을때 학생의 학급환경지각은 그들의 학업성취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³⁷⁾

Georgia주의 연구 프로그램중에서 Ellett와 Masters는 MCI에 의해서 측정된 학교환경에 관한 학생들의 지각과 Coughlan과 Cooke의 학교연구(school survey)에 의해 측정된 학교환경에 관한 교사들의 지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³⁸⁾ 81개 국민학교(8,461명의 학생과 1,695명의 교사)의 학교 평균에 대해 규범적인 분석은 학교환경에 관한 학생의 지각과 교사의 지각과의 상관관계는 0.68과 0.62의 두가지 모두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였다.

-
- 36) C.D. Ellett, Masters, J.A. & Pool, J.E., The Incremental Validity of Teacher and Student Perceptions of Schoo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Georgia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tlanta, January 1978, pp.59-63.
- 37) M.L. Perkins, Canonical Correlatio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School Climate, Teacher Morale, and the Educationally Relevant Performance of Fourth Grad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76, pp.49-57.
- 38) C.D. Ellett & Masters, J.A., Learning Environment Perception: Teacher and Student Relations,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August, 1978, pp.73-87.

이러한 의미있는 상관관계와 관련된 규범적인 비중은 보다 불리한 행정적인 실행과 보다 나은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그리고 교육적 효과는 학생들의 낮은 갈등과 낮은 응집력으로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39) R.J. Coughlan & Cooke, R.A., Work attitude, In H.J. Welberg(Ed.), Evaluating Educational Performance: A Source book of Methods, Instruments, and Examples, Berkeley, Calif.: McCutchan, 1974, pp. 59-71.

Ⅱ. 研究의 問題 및 假說

1. 研究의 問題

여러 이론들을 근거로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내의 수업풍토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究明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문제1. 학생들의 학년(연령)에 따라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는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가?

문제2.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놓여 있는가?

문제3.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급풍토 하위변인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연령)과 성별의 개입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문제4. 학급풍토를 구성하는 있는 하위변인들간에는 상호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2. 假 說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급풍토 하위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假說下에 다음과 같은 假說을 설정하였다.

<假說 I> 학생들의 학년(연령)에 따라서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 즉 ㉠만족도 ㉡갈등 ㉢곤란도 ㉣경쟁심 ㉤응집력 변인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다.

〈假說 Ⅱ〉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서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 즉 ㉠만족도 ㉡갈등 ㉢곤란도 ㉣경쟁심 ㉤응집력 변인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假說 Ⅲ〉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급풍토 하위변인, 즉 ㉠만족도 ㉡갈등 ㉢곤란도 ㉣경쟁심 ㉤응집력 변인등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연령)과 성별의 개입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假說 Ⅳ〉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을 것이다.

IV. 研究의 方法

1. 研究의 對象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해 있는 S 중학교 1,2,3학년 남녀학생 312명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대상에 대한 질문지 배부 및 회수 상황은 <表-1>과 같다.

〈表-1〉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구 분		내 용	배 부 수	회 수 수 (회수율)
성 별	남		157	154 (98.09%)
	여		155	153 (98.71%)
학 년	1 학년		104	102 (98.08%)
	2 학년		104	102 (98.08%)
	3 학년		104	103 (99.04%)

이상과 같이 남녀 1,2,3학년에게 312매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질문지는 307매로 약 98.40%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상의 307매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 檢査道具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검사도구는 학급환경을 測定하기 위하여 McGill 대학의 Gary J. Anderson과 Western Australia 기술연구소의 Barry J. Fraser와 Illinois大學의 Herbert J. Walberg 등이 공동제작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학급환경 검사지이다. 학습환경검사지는 5개 하위변인, 즉 만족도, 갈등, 곤란도, 경쟁심 그리고 응집력 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급환경 검사지의 문항구성 내용을 보면 <表-2>와 같다.

<表-2> 학급환경 문항구성표

내 용	문 항 수
만 족	9
갈 등	8
곤 란 도	8
경 쟁 심	7
응 집 력	6
계	38

3. 研究의 節次

위의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시작하여 이에 관계되는 참고서적, 관계논문 등을 수집하고 연구 방향 설정과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제기된 연구문제와 관련된 검사지를 수집 이에 맞는 대상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처리와 함께 연구를 뒷받침해 줄 분석과 논의에 들어갔으며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내린다음 논문작성을 실시하였다.

4. 資料의 處理

앞서 기술한 사실을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 personal computer를 이용한 SAS(social analysis system) program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r)와 집단간 차를 검증하기 위해 ANOVA(analysis of variance: 변량 분석)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V. 結果 및 解釋

본 연구는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교과목간의 상관관계
둘째,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셋째, 중재변인 개입에 따른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
넷째, 학급풍토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를 究明하는데 있다.

1. 학생들의 각 학년에 따른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1) 우선 1학년 학생들 각 교과목 학업성취와 학급풍토 하위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 <表-3>과 같다.

<表-3> 1학년 학생의 기술통계치

변 인	사 례 수(N)	평 균	표준편차
도 덕	102	68.87	18.12
국 어	102	67.98	15.75
사 회	102	59.34	24.99
수 학	102	61.50	32.22
과 학	102	70.07	15.44
체 육	102	79.25	10.48
음 악	102	79.94	9.45
미 술	102	81.11	9.73
한 문	102	68.65	18.83
영 어	102	63.67	22.42
실 업	102	77.57	13.87
총 점	102	778.00	151.80
충 도	97	12.80	2.39
만 족	99	11.78	1.74
갈 램	100	11.53	1.68
곤 령	102	8.89	1.40
경 응	101	8.31	1.67

2) 1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表-4>와 같다.

<表-4> 1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교과목 학급풍토 하위변인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영어	실업	총점
만족도	-0.113 0.270	-0.087 0.398	-0.206 0.043	-0.036 0.725	-0.103 0.316	-0.213 0.036	0.017 0.871	0.013 0.903	-0.091 0.377	0.057 0.580	-0.056 0.127	-0.097 0.344
갈등	-0.040 0.696	0.001 0.992	0.169 0.094	-0.012 0.903	0.028 0.786	0.024 0.816	-0.117 0.245	0.042 0.681	0.058 0.566	-0.003 0.976	-0.009 0.928	0.026 0.797
곤란도	0.177 0.079	0.149 0.138	0.177 0.078	0.116 0.251	0.232 0.020	0.109 0.279	0.111 0.272	0.179 0.075	0.168 0.095	0.139 0.169	0.159 0.115	0.197 0.050
경쟁심	0.24 0.215	0.197 0.047	0.138 0.165	0.190 0.055	0.158 0.113	0.338 0.001	0.314 0.001	0.194 0.050	0.302 0.002	0.114 0.253	0.277 0.005	0.250 0.011
응집력	-0.027 0.785	-0.074 0.463	-0.099 0.323	-0.041 0.683	-0.135 0.178	-0.065 0.517	0.199 0.844	-0.043 0.672	-0.082 0.414	0.053 0.597	-0.127 0.207	-0.070 0.487

이상의 <表-4>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곤란도 변인과 경쟁심 변인은 학업성취(총점)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197과 0.250으로 만족도 변인, 갈등변인 그리고 응집력 변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의 유의도 수준도 각각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假說 I -c>와 <假說 I -d>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가설은 肯定되었으나 <假說 I -a>와 <假說 I -b> 그리고 <假說 I -e>는 否定된 셈이다.

경쟁심 변인은 모든교과목과의 상관계수나 다른 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체육($r=0.338$)과 음악($r=0.314$)이 다른 교과에

비하여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체육과 음악교과는 실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며 동료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기회가 많으므로 서로 잘 할려는 경쟁심이 직접 교과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2학년 학생들의 각 교과목 학업성취와 학급풍토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 <表-5>와 같다.

<表-5> 2학년 학생의 기술통계치

변 인	사 례 수(N)	평 균	표준편차
도 덕	102	62.98	15.78
국 어	102	69.61	15.47
사 회	102	62.96	19.70
수 학	102	56.41	22.34
과 학	102	69.18	14.40
체 육	102	78.65	8.04
음 악	102	79.29	10.30
미 술	102	81.98	7.32
한 문	102	64.54	20.44
영 어	102	70.62	18.07
실 업	102	79.37	12.96
총 점	102	775.60	143.50
만 족 도	99	14.38	2.61
갈 등	97	11.72	1.61
곤 란 도	100	11.56	1.54
경 쟁 심	102	9.58	1.44
옹 집 력	101	8.79	1.88

4) 2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表-6>과 같다.

<表-6> 2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교과목 학급풍토 하위변인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영어	실업	총점
만 족 도	0.068	-0.003	-0.031	0.302	0.041	-0.205	-0.112	0.148	-0.060	0.115	-0.074	0.041
	0.503	0.979	0.759	0.002	0.690	0.042	0.270	0.143	0.553	0.256	0.469	0.687
갈 등	-0.105	-0.037	-0.001	-0.140	-0.057	0.058	0.025	-0.100	-0.029	-0.049	-0.027	-0.056
	0.308	0.718	0.993	0.171	0.580	0.576	0.810	0.331	0.778	0.632	0.793	0.586
곤 란 도	0.090	0.107	0.115	-0.043	0.097	0.119	0.279	-0.107	0.182	0.055	0.192	0.111
	0.372	0.289	0.254	0.671	0.338	0.240	0.005	0.291	0.070	0.585	0.056	0.270
경 쟁 심	0.086	0.069	0.004	0.037	0.070	0.055	0.088	0.107	0.124	0.065	0.108	0.074
	0.388	0.489	0.969	0.709	0.481	0.580	0.377	0.284	0.214	0.517	0.278	0.462
응 집 력	0.019	-0.091	-0.082	0.028	-0.053	-0.168	-0.115	0.026	-0.058	-0.046	-0.065	-0.056
	0.850	0.368	0.418	0.780	0.596	0.094	0.251	0.798	0.564	0.651	0.518	0.578

위의 <表-6>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2학년 학생인 경우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假說 I>은 모두 否定되었다.

그러나 학급풍토 하위변인 중에서 곤란도 변인과 음악교과와의 상관계수는 0.279($P < 0.01$)로 나타나 다른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각 교과목 성적과의 상관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

5) 3학년 학생들의 각 교과목 학업성취와 학급풍토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 <表-7>와 같다.

<表-7>

3학년 학생의 기술통계치

변 인	사 례 수(N)	평 균	표준편차
도 덕	103	74.47	13.72
국 어	103	70.13	13.52
사 회	103	68.86	16.94
수 학	103	56.14	22.90
과 학	103	73.57	14.18
체 육	103	85.32	8.27
음 악	103	79.27	9.46
미 술	103	82.76	8.63
한 문	103	67.49	19.39
영 어	103	63.17	20.19
실 업	103	79.78	11.74
총 점	103	800.90	137.80
만 족 도	100	12.86	2.35
갈 등	101	12.36	1.59
곤란 도	100	11.85	1.75
경쟁 심	103	9.52	1.40
응집 력	101	8.51	1.65

6) 3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表-8>과 같다.

〈表-8〉 3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학급풍토 하위변인	교과목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영어	실업	총점
만 족 도	0.162	0.046	0.119	0.037	0.138	-0.064	-0.036	0.069	-0.099	0.031	0.035	0.047
	0.108	0.648	0.237	0.715	0.171	0.525	0.720	0.495	0.326	0.762	0.733	0.642
갈 등	-0.153	-0.027	-0.039	-0.013	-0.135	0.025	0.076	-0.148	0.129	-0.044	0.046	-0.026
	0.126	0.786	0.699	0.897	0.177	0.808	0.447	0.139	0.197	0.660	0.646	0.800
곤 란 도	-0.025	0.068	-0.018	0.153	0.090	0.118	0.178	0.032	0.106	0.206	-0.003	0.104
	0.808	0.504	0.860	0.129	0.371	0.243	0.076	0.753	0.295	0.039	0.973	0.305
경 쟁 심	-0.165	0.035	-0.038	-0.051	-0.115	0.029	0.070	-0.111	0.046	-0.090	-0.022	-0.047
	0.096	0.727	0.707	0.610	0.249	0.768	0.483	0.264	0.646	0.365	0.825	0.638
응 집 력	0.126	0.013	0.049	0.061	0.127	-0.072	-0.083	0.052	-0.146	0.034	0.063	0.015
	0.210	0.898	0.629	0.544	0.204	0.472	0.409	0.609	0.145	0.732	0.532	0.878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나 있듯이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3학년 학생인 경우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 설정한 〈假說 I〉은 모두 부정되었다. 특히 갈등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는 $-0.026(P>0.05)$ 으로 역상관관계로 나타나 갈등변인은 학업성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학생들의 각 성별에 따른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1) 남학생들의 각 교과목 학업성취와 학급풍토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 <表-9>와 같다.

<表-9> 남학생들의 기술통계치

변 인	사 례 수(N)	평 균	표준편차
도 덕	154	69.71	17.08
국 어	154	67.54	16.03
사 회	154	62.32	20.18
수 학	154	61.02	22.47
과 학	154	73.32	14.60
체 육	154	77.90	9.55
음 악	154	77.09	10.08
미 술	154	83.97	9.03
한 문	154	62.27	20.59
영 어	154	69.40	20.89
실 업	154	76.72	12.31
총 점	154	781.30	150.20
만 족 도	146	13.14	2.67
갈 등	150	11.62	1.82
곤 란 도	151	11.42	1.65
경 쟁 심	154	9.38	1.40
응 집 력	152	8.86	1.84

2) 남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表-10>과 같다.

〈表-10〉 남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학급풍토 하위변인	교과목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영어	실업	총점
만 족 도	-0.133	0.005	-0.041	0.048	-0.117	-0.119	0.003	-0.044	-0.082	0.039	-0.022	-0.042
	0.111	0.950	0.620	0.568	0.158	0.152	0.972	0.597	0.325	0.639	0.793	0.617
갈 등	-0.011	-0.039	0.030	0.036	0.031	0.049	-0.039	0.072	0.031	0.003	-0.014	0.015
	0.896	0.632	0.711	0.666	0.702	0.553	0.635	0.382	0.703	0.971	0.868	0.851
곤 란 도	0.207	0.193	0.183	0.261	0.325	0.194	0.260	0.217	0.233	0.250	0.174	0.263
	0.011	0.018	0.024	0.001	0.000	0.017	0.001	0.008	0.004	0.002	0.033	0.001
경 쟁 심	-0.131	-0.061	-0.036	-0.052	-0.088	-0.058	-0.064	-0.062	-0.120	-0.051	-0.120	-0.088
	0.105	0.449	0.655	0.521	0.277	0.476	0.429	0.442	0.138	0.530	0.138	0.279
응 집 령	0.020	-0.024	-0.020	-0.044	-0.053	0.008	-0.051	-0.070	-0.082	-0.040	-0.031	-0.041
	0.803	0.766	0.811	0.594	0.518	0.918	0.536	0.388	0.316	0.626	0.701	0.615

위의 〈表-10〉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곤란도 변인과 학업성취(총점)와의 상관관계는 0.263로 다른 학급풍토 하위변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학급풍토지각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 II-c〉는 肯定되었지만 나머지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否定된 셈이다.

곤란도 변인은 교과목에 상관없이 다른 변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과학교과와 수학교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325와 0.261로 이의 유의도 수준도 0.00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과 과학교과의 교과목 특성이 유사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여학생들의 각 교과목 학업성취와 학습풍토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 <表-11>과 같다.

<表-11> 여학생들의 기술통계치

변 인	사 례 수(N)	평 균	표준편차
도 덕	153	67.93	16.10
국 어	153	70.95	13.55
사 회	153	65.17	21.97
수 학	153	54.98	29.31
과 학	153	68.56	14.56
체 육	153	84.30	8.24
음 악	153	81.93	8.72
미 술	153	79.92	7.68
한 문	153	71.54	17.36
영 어	153	62.12	19.55
실 업	153	81.11	13.10
총 점	153	788.5	138.8
만 족 도	150	12.59	2.19
갈 등	147	12.30	1.42
곤 란 도	149	11.88	1.64
경 쟁 심	153	9.29	1.49
응 집 령	151	8.21	1.58

4) 여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表-12>와 같다.

〈表-12〉 여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교과목 학급풍토 하위변인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영어	실업	총점
만 족 도	0.043	0.072	-0.001	0.042	0.032	-0.098	0.072	0.068	0.053	0.103	0.017	0.049
	0.603	0.384	0.994	0.607	0.702	0.235	0.383	0.411	0.521	0.209	0.839	0.557
갈 등	-0.061	-0.031	0.135	-0.097	-0.024	-0.019	-0.104	-0.107	-0.029	-0.028	-0.044	-0.037
	0.462	0.708	0.102	0.243	0.769	0.817	0.211	0.196	0.725	0.733	0.596	0.654
곤 란 도	0.014	-0.014	0.036	-0.030	0.036	-0.020	0.041	-0.049	-0.011	0.064	0.030	0.013
	0.869	0.863	8.664	0.718	0.663	0.811	0.621	0.556	0.893	0.439	0.716	0.879
경 쟁 심	0.113	0.068	0.023	0.178	0.132	0.072	0.160	0.213	0.148	0.101	0.118	0.145
	0.163	0.401	0.780	0.028	0.105	0.377	0.048	0.008	0.068	0.216	0.147	0.074
응 집 력	-0.023	-0.034	-0.049	0.001	-0.069	-0.099	0.029	0.022	-0.024	0.049	-0.064	-0.026
	0.775	0.675	0.553	0.991	0.400	0.224	0.723	0.785	0.774	0.548	0.432	0.754

이상의 〈表-12〉에서 나타나 있듯이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여학생인 경우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假說 Ⅱ〉는 모두 부정되었다.

그러나 학습풍토 하위변인 중에서 수학, 음악 그리고 미술교과목의 상관계수는 각각 0.17, 0.16, 0.213으로 나타나 다른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각 교과목 성적과의 상관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악이나 미술교과목의 성적은 경쟁심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기회가 다른 교과목에 비하여 많은데서 기인된 결과로 보여진다.

3.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차이검증

1)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만족도 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表-13>과 같다.

<表-13>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만족도 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효과

변량원	자유도 (df)	자승화 (SS)	평균자승화 (MS)	F	Pr > F
만족도	1	11432.37	11432.37	0.55	0.4607
성별	1	4034.25	4034.25	0.19	0.6612
학년	2	40275.43	20137.72	0.96	0.3837
만족도×성별	1	70534.72	70534.72	3.67	0.0476
만족도×학년	2	17701.56	8850.78	0.42	0.6559
성별×학년	2	17095.98	8547.99	0.41	0.6654

이상의 <表-13>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만족도 변인의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0.4607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3.84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만족도 변인의 지각 정도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假說 Ⅲ-a>는 否定된 셈이다.

그러나 성별의 개입에 따른 만족도 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 효과만은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3.67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2.99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개입에 따른 만족도 변인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갈등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

아본 결과는 다음 <表-14>와 같다.

<表-14>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갈등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효과

변량원	자유도 (df)	자승화 (SS)	평균자승화 (MS)	F	Pr > F
갈등	1	383.26	383.26	0.02	0.8933
성별	1	4034.25	4034.25	0.19	0.6634
학년	2	40275.43	20137.72	0.95	0.3888
갈등×성별	1	1184.10	1184.10	0.06	0.8136
갈등×학년	2	10886.40	5443.20	0.26	0.7742
성별×학년	2	17095.98	8547.99	0.40	0.6692

이상의 <表-14>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갈등변인의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0.02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3.84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갈등변인의 지각 정도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假說 Ⅲ-b>는 否定된 셈이다.

이밖에 성별과 학년의 개입에 따른 갈등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서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각각 0.06과 0.26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3.84와 2.99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곤란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表-15>와 같다.

〈表-15〉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곤란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효과

변량원	자유도 (df)	자승화 (SS)	평균자승화 (MS)	F	Pr > F
곤란도	1	210212.09	210212.09	10.40	0.0014
성별	1	4034.25	4034.25	0.20	0.6554
학년	2	40275.43	20137.72	1.00	0.3705
곤란도×성별	1	63443.51	63443.51	3.14	0.0775
곤란도×학년	2	47057.91	23528.96	1.16	0.3136
성별×학년	2	17095.98	8547.99	0.42	0.6555

이상의 〈表-15〉에서 알 수 있듯이 곤란도변인의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10.40으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3.84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므로 곤란도변인의 지각 정도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假說 Ⅲ-c〉는 肯定된 셈이다.

이밖에 성별과 학년의 개입에 따른 곤란도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서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각각 3.14와 1.16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3.84와 2.9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경쟁심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表-16〉와 같다.

〈表-16〉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경쟁심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효과

변량원	자유도 (df)	자승화 (SS)	평균자승화 (MS)	F	Pr > F
경쟁심	1	29128.96	29128.96	1.38	0.2418
성별	1	4034.25	4034.25	0.19	0.6628
학년	2	40275.43	20137.72	0.95	0.3875
경쟁심×성별	1	0.00	0.00	0.00	1.0000
경쟁심×학년	2	6454.52	3227.26	0.15	0.8587
성별×학년	2	17095.98	8547.99	0.40	0.6682

이상의 〈表-16〉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경쟁심변인의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1.38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3.8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쟁심변인의 지각 정도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假說 Ⅲ-d〉는 否定되었다.

또한 성별과 학년의 개입에 따른 경쟁심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서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각각 0.00과 0.15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3.84와 2.9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경쟁심변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응집력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表-17〉와 같다.

〈表-17〉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응집력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효과

변 량 원	자유도 (df)	자승화 (SS)	평균자승화 (MS)	F	Pr > F
응 집 력	1	31637.65	31637.65	1.50	0.2223
성 별	1	4034.25	4034.25	0.19	0.6626
학 년	2	40275.43	20137.72	0.95	0.3871
응집력×성별	1	8365.61	8365.61	0.40	0.5299
응집력×학년	2	2947.32	1473.66	0.07	0.9327
성별×학년	2	17095.98	8547.99	0.40	0.6679

위의 〈表-17〉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응집력변인의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1.50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3.8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응집력변인의 지각 정도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假說 Ⅲ-e〉는 否定된 셈이다.

또한 성별과 학년의 개입에 따른 응집력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서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이 각각 0.40과 0.07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3.84와 2.9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응집력변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학급풍토 하위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1) 학급풍토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 〈表-18〉과 같다.

<表-18>

학급풍토 하위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 인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만 족 도	296	13.35	2.55
갈 등	297	11.96	1.66
곤 란 도	300	11.65	1.66
경 쟁 심	307	9.33	1.44
응 집 력	303	8.53	1.74

2) 학급풍토 하위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表-19>와 같다.

<表-19>

학급풍토 하위변인과의 상관관계

	만 족 도	갈 등	곤 란 도	경 쟁 심	응 집 력
만 족 도	1.00000 0.0000	-0.50381 0.0001	-0.26447 0.0001	-0.11459 0.0489	0.50449 0.0001
갈 등	-0.50381 0.0001	1.00000 0.0000	0.20772 0.0004	0.22099 0.0001	-0.41622 0.0001
곤 란 도	-0.26447 0.0001	0.20772 0.0004	1.00000 0.0000	0.14607 0.0113	-0.24297 0.0001
경 쟁 심	-0.11459 0.0489	0.22099 0.0001	0.14607 0.0113	1.00000 0.0000	-0.10455 0.0692
응 집 력	0.50449	-0.41622 0.0001	-0.24297 0.0001	-0.10455 0.0692	1.00000 0.0000

위의 <表-19>의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도변인과 갈등변인, 만족도변인과

곤란도변인, 만족도변인과 경쟁심변인, 갈등변인과 응집력변인, 곤란도변인과 응집력변인, 응집력변인과 경쟁심변인 등의 상관계수는 각각 -0.50, -0.26, -0.11, -0.42, -0.24, -0.10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들은 상반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負的 相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도 수준도 응집력 변인과 경쟁력 변인($P>0.05$)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변인중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변인은 만족도변인과 응집력변인($r=0.50$, $P<0.001$)인 반면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보인 변인은 응집력변인과 경쟁심변인($r=-0.10$, $P>0.05$)으로 나타나 꺾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要約 및 結論

본 장에서는 우선 간단히 정리 요약한 후에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 논문을 끝맺기로 하겠다.

1. 要 約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급내에서의 학생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환경변인이 그들의 학업성취와는 상호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구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학급풍토 하위변인들의 지각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假說 I〉 학생들의 학년(연령)에 따라서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 즉 ㉠만족도 ㉡갈등 ㉢곤란도 ㉣경쟁심 ㉤응집력 변인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假說 II〉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서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 즉 ㉠만족도 ㉡갈등 ㉢곤란도 ㉣경쟁심 ㉤응집력 변인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假說 Ⅲ〉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급풍토 하위변인, 즉 ㉠만족도 ㉢갈등 ㉡곤란도 ㉣경쟁심 ㉤응집력 변인등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연령)과 성별의 개입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假說 Ⅳ〉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놓여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학급풍토를 측정하기 위하여 McGill대학의 Gary J. Anderson과 Western Australia 기술연구소의 Barry J. Fraser와 Illinois 대학의 Herbert J. Walberg 등이 공동 제작한 “학급환경” 검사지이다.

이와 같이 작성된 질문지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해 있는 S중학교 1, 2, 3학년 남녀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후 307명을 본 연구의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방법은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analysis of variance)와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1학년 학생의 경우 〈假說 I-c〉, 〈假說 I-d〉는 긍정되었으나 〈假說 I-a〉와 〈假說 I-b〉 그리고 〈假說 I-e〉는 부정되었다. 2학년과 3학년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하위변인이 부정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假說 II-c〉는 긍정되었으나 〈假說 II-a〉, 〈假說 II-b〉, 〈假說 II-d〉 그리고 〈假說 II-e〉는 부정되었다. 여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하위변인이 부정되었다.

중재변인의 개입에 따른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호작용 효

과에서 <假說 Ⅲ-c>는 긍정되었으나 <假說 Ⅲ-a>, <假說 Ⅲ-b>, <假說 Ⅲ-d> 그리고 <假說 Ⅲ-e>는 부정되었다.

2. 結 論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생들의 학년(연령)에 따라서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들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 I>에서 1학년의 경우 곤란도 변인과 경쟁심 변인은 학업성취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197과 0.250으로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로 밝혀졌다.

특히 경쟁심 변인과 체육($r=0.338$)과 음악($r=0.314$)교과목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학년과 3학년은 학급풍토 하위변인과 각 교과목간 상관관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 본 연구에서 설정한 <假說 Ⅱ>인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서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들과 학업성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에서 남학생의 경우 5개 하위변인 가운데 곤란도 변인과 학업성취와는 상관계수가 0.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의 유의도 수준도 0.0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5개의 학급풍토 하위변인 모두가 학업성취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남녀 학생간의 지각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 설정한 <假說 Ⅲ>인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급풍토 하위변인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연령)과 성별의 개입에 따라 상호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에서 곤란도 변인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머지 만족도변인, 갈등변인, 경쟁심변인 그리고 응집력변인 등은 학업성취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 학급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假說 Ⅳ>에서 응집력변인과 경쟁력변인($P>0.05$)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만족도변인과 응집력변인($r=0.50$, $P<0.001$)으로 가장 높은 유의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첫째, 학급풍토 하위변인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학급풍토 변인과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알아냄으로써 교육학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학급풍토 하위변인들 가운데 어느 한 변인이 학업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 변인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 오늘날 한창 문제시되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參 考 文 獻

< 국내 문헌 >

- 김억환, 「교육사회학」, 서울: 건국대학교출판사, 1983.
- 김병성, 「학교교육과 교육격차」, “교육사회학적 접근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5.
- 이홍우, 「교육과정탐구」, 서울: 박영사, 1981.
- 황정규, 「교육혁신」, 서울: 배영사, 1972.
- 강정구, 「교육성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류기섭,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미치는 학급풍토의 영향”, 중앙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19), 1974.
- 문천숙, “학습성취에 미치는 불안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안귀덕, “귀인성향, 지각학습풍토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국외 문헌 >

- Backman, C.W. & Paul F. Secord, A Social Psychological View of Education,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8.

- Bales, R.F., Interaction Process Analysis: A Method for the Study of Small Groups, Reading Mass, Addison Wesley, 1950.
- Boocock, S.S.,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Learn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2.
- Brookover, W., et al., School Social Systems and Student Achievement: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9.
- Brookover, W.B., Thomas, S. and Paterson, A.,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al, Vol.37, 1964.
- Charez, R., et al., The Use of High Inference Measure to Study Classroom Climate, A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Summer, 1984.
- Chen, M. & Fresko, B., The Interaction of School Environment and Student Traits, Educational Research, 1978.
- Coleman, J.S., et al.,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 Coughlan, R.J. & Cooke, R.A., Work Attitude, In H.J. Welberg(Ed.), Evaluating Educational Performance: A Source book of Methods, Instruments, and Examples, Berkeley, Calif.: McCutchan, 1974.
- Devries, D.L. & Edward, K.J., Learning Games and Student Teams Their Effect on Classroom Proces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73.

- Ellett, C.D. & Master, J.A., Learning Environment Perception: Teacher and Student Relations,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August. 1978.
- Ellett, C.D., Masters, J.A. & Pool, J.E., The Incremental Validity of Teacher and Student Perceptions of Schoo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Meeting of the Geogia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tlanta, January 1978.
- Fink, M.B., Self-Concept as It Relates to Academic under Achievement, California: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VII, Feb. 1962.
- Fraser, B.J. & Fisher, D.L., Validity and Use of the My Class Inventory, Science Education, 1981.
- Lecky, R.C., Self-Consistensy: A Theory of Personality, N.Y.: Island Press, 1945.
- Lynn, R. & Gordon, I.E., The Relation of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to Intelligence and Educational Attainmen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1(1961).
- MacIelland, D.C. & Aekinson, J.W.,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Appleton-Crofts, 1953.
- Oakes, J. Classroom Social relationship: Exploring the Bowles and Gintis Hypothesis, Sociology of Education, 1982.

- O'Reilly, R., Classroom Climate and Achievement in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Classes, The Alber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75.
- Pace, C.R., CUES: Prehminary Technical Mannual, Princeton, N.Y.: Educational Test Servie, 1969.
- Perkins, M.L., Canonical Correlatio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School Climate, Teacher Morale, and the Educationally Relevant Performance of Fourth Grad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76.
- Purkey, W.W., Self-Concept and School Acheivem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1.
- Sarason, L.G., Experimental Approaches to Test Anxiety: Attention and Use of Information, In C.D. Spielberger,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II), New York: Academic Press, Inc., 1972.
- Talmage, H. & Hart, A., A Study of Investigatiue Teaching of Mathematics and Effects on the Classroom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1977.
- Talmage, H. & Walberg, H.J., Naturalistic Decision-Oriented Evaluation of a District Reading Program, Journal of Reading Behavior, 1978.

Walberg, H.J., et al., Psychology of Learning Environment: Behavioral Structural or Perceptual in L.Shulman(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1976.

Walberg, H.J., Sorenson, J. & Fishbach, T., Ecological Correlates of Ambience in the Learning Environ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72.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lassroom Climate Variable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Seo, Wen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lassroom climate variable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To find out this relationship,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questinary surrey.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hat support the importance of classroom climate inportance or classroom climate influence up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were drawn, and inrestigator had serveal questions as follows:

Are there any differential effects of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intermediate varialoles, such as satisfaction, friction, difficulty, competitiveness and cohesiveness?

To get answers to the proposed problems, investigator established

four hypotheses:

<Hypothesis I >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ub-variables which constitute classroom climate and academic achievement will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s(ages) of students.

<Hypothesis II >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ub-variables which constitute classroom climate, ①satisfaction ②friction ③difficulty ④competitiveness ⑤cohesive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will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of students.

<Hypothesis III > Interaction effects of classroom climate, ①satisfaction ②friction ③difficulty ④competitiveness ⑤cohesiveness on academic achievement will be differently influenced by moderator variables(grade, sex).

<Hypothesis IV > The correlation among the sub-variables which constitute classroom climate will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test the above hypotheses, my class Inventory was used to measure perception's levels of classroom climate. This questionnaire was school in Sung Nam city during the second semester of 1991.

The results of test are as follows:

1. In case of first grade, <Hypothesis I -c> and <Hypothesis I -d> were accepted but <Hypothesis I -a>, <Hypothesis I -b> and <Hypothesis I -e> were rejected. In case of second grade and third grade, all hypotheses were rejected.

2. In case of male students, <Hypothesis II -c> is accepted but

<Hypothesis II -a> , <Hypothesis II -b> , <Hypothesis II -d> and <Hypothesis II -e> are rejected. In case of female students, all hypotheses were rejected.

3. <Hypothesis III -c> is accepted but <Hypothesis III -a> , <Hypothesis III -b> , <Hypothesis III -d> and <Hypothesis III -e> were rejected.

〈 부 록 〉

학급 풍토 지각에 관한 학급 환경 항목표 설문지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글들은 여러분의 학급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급을 표현한 다음의 글들을 읽고 옳다고 생각되면 “그렇다”에 ○표를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니다”에 ○표를 해 주세요.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하도록 하고 만약 이미 대답한 것을 바꾸려면 먼저 답에 ×표를 하고 새로운 답에 ○표를 하면 됩니다.

〈예〉 우리 반의 학생들은 모두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아니다.

※ 만약 여러분의 친구들이 모두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되면 “그렇다”에 ○표 하면 됩니다.

본 자료는 연구 목적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천언합니다.

1992년 2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서 원 울림

학교 :

학년 : 반 : 번호 : 성명 : 성별 : (남·여)

문	항	그렇다	아니다
1.	우리반에서는 학생들이 모두가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		
2.	우리반의 애들은 늘상 서로가 헐뜯고 싸운다.		
3.	우리반에서 하는 공부는 어렵게 느껴진다.		
4.	우리반에는 심술궂은 아이들이 있다.		
5.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반을 좋아하고 있다.		
6.	우리반 애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제일 빨리 하나 보기 위해 자주 경쟁을 하곤 한다.		
7.	우리반의 대부분 아이들은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다.		
8.	우리반에는 우리반을 좋아하지 않은 애들도 있다.		
9.	대부분의 우리반 애들은 자기 친구들 보다 자신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10.	우리반의 많은 애들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11.	우리반에서는 단지 영리한 애들만이 학과 공부를 따라갈 수 있다.		
12.	우리 학급의 애들은 모두 다 나의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	항	그렇다	아니다
13.	우리반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14.	우리반에는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애들도 몇명 있다.		
15.	어떤 애들은 자기가 남만큼 잘하지 못했을때 기분나빠 한다.		
16.	대부분의 애들은 우리반이 재미있다고 한다.		
17.	우리반의 애들중 내친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애들도 몇명 있다.		
18.	우리반의 애들은 공부가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19.	대부분의 애들은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가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다.		
20.	어떤 애들은 다른 애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		
21.	어떤 학생들은 우리 학급에 있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한다.		
22.	우리 학급에서는 모든 애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낸다.		
23.	우리반에서는 단지 영리한 애들만이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다.		

문	항	그렇다	아니다
24.	우리반의 애들은 언제나 자기가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 할려고 노력한다.		
25.	우리반의 애들은 우리반을 좋아하는 것 같다.		
26.	우리반의 어떤 애들은 언제나 자기 고집대로만 할려고 한다.		
27.	우리반에서는 대부분의 애들이 사이좋게 지낸다.		
28.	우리 학급에는 공부하기가 쉽다고 말하는 애들이 많다.		
29.	우리 학급에는 언제나 자기가 제일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		
30.	우리반에는 우리반을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있다.		
31.	우리반 애들은 싸움을 많이 한다.		
32.	우리반의 모든 학생들은 서로가 사이좋게 지낸다.		
33.	학교 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34.	우리반에는 다른 애들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다.		
35.	우리반에는 항상 일등만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		
36.	우리반은 재미 있는 반이다.		

문	항	그렇다	아니다
37.	우리반에 있는 대부분의 애들은 자기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38.	우리반의 애들은 서로가 친구로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